22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막툼 빈 라시드 경기장에서 열린 2019 AFC 아시안컵 16강전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 한국 파울루 벤투 감독이 연장전에 들어가자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4개 대회 연속 토너먼트 첫 판 연장전, 또 힘 뺐다

바레인과 16강전 의외 고전…내일 카타르전 체력관리 중요

한국이 토너먼트 첫 판에서 또다시 힘을 뺐다. 충분히 90분 안에 꺾을 수 있는 상대로 펼친 혈투이기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은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16강을 치렀다. 2-1로 이겼지만 연장까지 가는 졸전을 펼쳤다.

손쉬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은 의외로 고전했다.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은 월등히 많았지만 실속이 없었다.

답답한 공격이 계속되던 전반 43분 황희찬(함부르크)의 선제골이 터졌다. 키르기스스탄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던 황희찬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이 골을 시발점으로 편안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후에도 답답한 흐름은 계속됐다. 오히려 후반 32분 모하메드 알 로마이히에게 동점골을 헌납했다.

동점골 이후 한국 벤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벤투 감독은 급하게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이승우(베로나) 등 공격 자원들을 대거 투입했다. 하지만 결국 승부는 연장으로 넘어갔다.

연장 전반 12분 김진수(전북)의 천금 같은 결승골로 승리를 챙겼지만 90분 안에 마무리해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16강전부터는 90분의 정규시간이 무승부로 끝나면 전후반 15분의 연장전을 치른다. 여기서도 승자가 가려지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다음 라운드 진출팀을 정한다. 16강부터 결승까지 3~4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한국은 실패로 막을 내린 최근 세 차례 아시안컵 토너먼트 첫 관문에서 모두 연장전을 소화했다. 동남아 4개국(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2007년 대회에서는 이란과의 8강전부터 120분 혈투를 치렀다. 승부차기 끝에 4-2로 이겨 4강에 진출했으나 이미 너무 많은 힘을 뺀 뒤였다. 결국 4강에서 이라크에 덜미를 잡혔다.

2011년 카타르 대회 토너먼트도 쉽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란이 앞을 막았다. 연장전에 터진 윤빛가람(상주)의 천금 같은 결승골로 웃었으나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져 탈락했다. 2015년 호주 대회 역시 우즈베키스탄과 치열한 힘겨루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선수들은 예상보다 많은 체력을 소진한 채 사흘 뒤 열릴 8강전을 소화해야 한다. 59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벤투호의 체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한편 오는 25일 열리는 8강 상대는 카타르로 정해졌다. 카타르는 이날 UAE 아부다비 알 나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에서 센터백 바삼 알 라위(알두하일)의 골로 이라크를 1-0으로 물리치고 8강에 올랐다.

한국과 카타르는 오는 25일 오후 10시 아부다비 셰이크 자이드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준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다.

국제무대 성적에선 한국이 앞선다. 카타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93위, 한국은 53위로 큰 차이가 난다. 역대 전적서도 5승2무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카타르의 최근 기세는 심상치 않다. 오는 2022년 자국서 열리는 월드컵에 대비해 대표팀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물병 사건'에 답한 이승우 "성숙하지 못해 죄송"

16강 바레인전 후반 44분 교체 등장 아시안컵 데뷔

교체 투입이 무산되자 물병을 발로 걷어차는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한 축구대표팀 공격수 이승우(베로나)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자책했다.

이승우는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16강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승우는 지난 16일 중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끝내 출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자 물병과 수건을 걷어찼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착용하고 있던 정강이 보호대를 손으로 빼 집어던졌다.

이승우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모든 선수들은 뛰고 싶어한다. 승부욕과 열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매 경기 들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내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돌아봤다.

해당 장면은 축구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당돌하다는 의견과 막내급 선수로서 해야 할 행동은 아니라는 지적이 갈렸다.

선배들은 이승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선수로서 심정만큼은 이해한다며 기운을 불어줬다. 이승우는 "형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 곁에서 큰 도움이 됐다"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승우는 1-1로 맞선 후반 44분 교체로 등장, 연장전 포함 30분 가량을 뛰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과감한 슛 시도로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승우는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기쁘다. 남은 시간 잘 회복해서 8강 준비를 잘하겠다"고 전했다. "항상 경기장에 들어가면 골을 넣고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싶다. 대표팀으로서 뛰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다. 누구보다 의욕이 넘친다"며 득점과 도움을 향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끝으로 이승우는 "너무 의욕이 넘쳤고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다"면서 "팀이 승리해서 8강에 올라 기쁘다. 팀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잘 된 것 같다"며 아시안컵 데뷔전을 자평했다.

뉴시스

리베라, 역대 최초 '만장일치' 명예의 전당 입성

'수호신' 마리아노 리베라(50)가 사상 최초 만장일치 명예의 전당 입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23일(한국시간) 공개한 2019년 명예의 전당 투표 결과에 따르면 리베라는 투표자 425명에게 모두 표를 받아 만장일치로 미국 뉴욕주 쿠퍼스타운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다.

BBWAA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만장일치가 나온 것은 83년 만에 처음이다. 종전 최고 득표율은 2016년 켄 그리피 주니어의 99.32%다.

리베라는 당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군림했다.

1995년 뉴욕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데뷔한 리베라는 2013년까지 양키스에서만 뛰면서 통산 1115경기에 등판, 652세이브 평균자책점 2.21을 기록했다. 역대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 세이브 기록은 여전히 리베라가 가지고 있다.

리베라가 단일 시즌에 40세이브 이상을 기록한 것은 무려 9번이나 되는데 이 또한 트레버 호프만과 함께 역대 통산 최다 기록이다.

포스트시즌에서는 96경기에 등판해 8승 1패 42세이브 평균자책점 0.70의 성적을 거뒀다. 7번의 월드시리즈에서는 24경기에서 2승 1패 11세이브 평균자책점 0.99를 기록했고, 5번이나 우승 반지를 끼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나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을 갖춘 리베라는 첫 번째 도전에서 만장일치라는 역사를 쓰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1999년에는 월드시리즈, 2003년에는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뉴시스

'축구선수 도전' 우사인 볼트 "스포츠 인생은 끝"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축구선수 도전을 끝마쳤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보도했다.

BBC는 23일(한국시간) 볼트가 자메이카 언론과 인터뷰에서 축구선수 도전에 대한 뜻을 접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볼트는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서 가진 인터뷰에서 "스포츠에서의 삶은 끝났다. 앞으로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많은 일들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2017년 은퇴한 그는 오랜 꿈인 축구 선수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독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합류해 훈련을 하기도 했던 그는 지난해 호주 프로축구 센트럴 코스트 매리너스의 연습생으로 입단했다. 친선 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했지만 정식 입단 계약을 체결하진 못했다.

뉴시스